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7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, 권덕중 서기관(5261)

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 추진

- **공기업 6.4조원 신산업 투자로 민간과 중소·벤처기업 사업기회 확대**
- **규제개선 협의체 2월중 출범, 분야도 석유·가스 등으로 확대**
- **프로슈머 시범지역 2월중 선정, 하반기 추진사업은 공모로 선정**
- **해외진출로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추진**

□ 민간의 에너지신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여 시장을 확대 ['16년 총 6.4조원 투자]

① **(전력新산업 펀드)** 투자 회임기간이 긴 **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**과 **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**를 위해 **한전이 2조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** ('16년 1조원 및 '17년 1조원 추가출자)

- **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·육성**, 전력신기술·기후변화 대응 **기술개발,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** 등 **3대 분야 자금 공급 확대**

- **한전 및 민간수요**를 바탕으로 **3월까지 운영기본계획**을 마련하고, **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**

② **(신재생투자)** 옥상부지에 **태양광을 설치**하고 **수익을 공유**하는 **학교 태양광 프로젝트**에 '16~'17년 4천억원 투자 **(연내 1천개 학교 설치)**

-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**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를 선정**하고, 별도 법인(SPC)을 설립하여 **연내 착공**

③ **(스마트미터/ESS)** 스마트미터는 올해 **2,500억원을 투자**(200만호 보급), ESS는 올해 **1,800억원 투자**, 내년까지 **6,250억원 투자 완료**

- 상반기 중 AMI 보급지역 내 시범구역을 선정, 계시별 요금제, 소비데이터 관리, 사이버 보안 등 **스마트미터 활용 서비스 실증**

④ **(전기차 충전소)** 한전이 올해 **2천억원을 투자, 민간사업자와 공동이용**이 가능한 **전기차 충전소 20개소 건설** (충전기 500기)

* (내용) 중대형 규모 충전소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, 초기 투자비 경감
* (일정) 3월중 입지·규모 확정, 7월부터 **신규 충전소 순차 개설**

⑤ **(빅데이터)** **「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」**를 개설,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

- 센터 개설 이전에도 한전, 전력거래소, 민간연구소 등이 각각 분석한 전기사용량 등 **공공정보 대폭 공개** (6월~)

⑥ **(효율향상)** **「KEPCO 에너지솔루션」**을 설립(3분기), 중소 LED·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**3천억원 규모의 ESCO 사업** 추진

□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,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

⑦ 연두 업무계획에 보고된 진입규제*는 **상반기 중 정비 추진**

* 프로슈머 이웃 판매, 충전사업자 재판매, ESS 및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

- **하위규정은 1분기 중 개정** 완료, 전기사업법은 **20대 국회 제출**(6월)
- 상반기 중 거래가격 실증 등 **프로슈머** 시범사업(2~3개지역) 실시 (1개 지역은 공모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⑧ 旣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뿐만 아니라, 석유·가스·전기·열 등 **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**

- **「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」**(단장: 산업부2차관)를 구성,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**세부검토**를 거쳐 **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 발표**

⑨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따라 **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을 선택**할 수 있도록 허용

-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**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** 도입 (3월말 약관개정)
- 규제프리존인 **제주도**의 전기차 충전 **기본요금 한시 할인** (2년간 50%)
-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**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기를 공급**받을 수 있도록 **전력시장 참여 허용** (전기사업법 개정)

□ **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-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 실시**

⑩ 국내 기업(ESS, AMI, 마이크로그리드 분야)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**지역별 전략 수립,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, 정상외교 및 금융, 국내 방문전략***을 연계하는 **종합지원책 추진**

*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(KSVP): 해외 정책결정자 국내 초청

□ **금번 후속조치를 통해,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,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**

○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**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**, 확대되는 **시장에 차별 없이 접근**하며, 국내 사업운영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과 함께 **해외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**할 수 있는 **종합적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**을 이번 **「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」**에 담음

< 붙임 >

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

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2016. 1.

산업통상자원부
에너지산업정책관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목 차

Ⅰ. 에너지신산업 투자 대폭 확대

1. 전력 新산업 육성 펀드 ····· 3
2. 학교 태양광 설치 ····· 6
3. 스마트미터 및 ESS
   ① 스마트미터(AMI) 보급 ····· 7
   ② 주파수조정용(FR) ESS 투자 ····· 8
4. 민간 공동이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 ····· 9
5. 電力빅데이터 활용 ····· 10
6. ESCO 등 에너지효율 사업 ····· 11

Ⅱ.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

7. 旣 발굴된 규제개선
   ①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 ····· 12
   ② 프로슈머 실증사업 3월中 실시 ····· 13
   ③ ESS 전력거래 허용 ····· 14
   ④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 ····· 15
8.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 ····· 16
9. 전기차 관련 규제개선
   ① 충전사업자 전기요금 원가부담 최대 23% 경감 ····· 17
   ② 전기차 충전사업자 직접 전력구매 허용 ····· 18
   ③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기준 마련 ····· 19

Ⅲ.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 실시

10. 동반성장 및 해외진출 ····· 20

Ⅰ. 에너지신산업 투자 대폭 확대

< '16년 전력공기업 新산업 투자계획 >

□ **(개요)** 올해 전력공기업은 **에너지新산업 분야**에 지난해 2.5조원보다 **2배 이상 대폭 늘어난 6.4조원을 집중 투자**할 계획

○ 금년도 에너지新산업 투자는 전력공기업 **전체 투자금액**(17.5조원)의 40%에 달하는 수준

* 분야별 투자금액('16): (신산업) 6.4조원, (전력설비) 11.1조원

□ **(주요분야)** 에너지新산업 펀드(2조원), 전기차 충전소(2천억원), AMI 보급(2,500억원)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(500억원), 신재생 투자(1.1조원), 「KEPCO 에너지솔루션」 설립(3천억원) 등

< 전력공기업 '16년 투자 내역 >

분야	금액		주요프로젝트	
新산업	6.4조원	1.9조원	·에너지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 * ('16) 1.0조원 → ('17) 2.0조원 (누적)	(1.0조원)
			·전기차 충전소 확대	(0.2조원)
			·AMI보급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	(0.3조원)
			·에너지저장장치, 스마트그리드 등	(0.4조원)
신재생		1.1조원	·학교 등 대상 신재생 투자	(0.4조원)
			·유휴부지 등 활용 신재생 투자 확대 *발전사 석탄회 처리장 등 활용	(0.7조원)
에너지효율		3.4조원	·ESCO 등 에너지효율향상투자	(0.3조원)
			·클린에너지 기술개발 (R&D)	(1.0조원)
			·전력설비 효율개선 투자	(2.1조원)
전력설비	11.1조원		·초고압 송전망 등 송배전망 확충	(3.5조원)
			·발전소 건설 등 안정적 전력공급	(2.7조원)
			·설비보강 등 에너지안전 투자	(4.9조원)

□ **(후속조치)** 규제개선 조치와 병행하여 **속도감 있게 투자 집행**

* (펀드) (3월) 기본계획 마련 → (2~3분기) 펀드 구성 → (4분기) 본격 운영
* (전기차) (3월) 입지·규모 확정 → (7월~) 신규 충전소 순차 개설
* (전력 빅데이터센터 구축) (6월) 공공정보 공개 → (9월) 센터 구축
* (학교 태양광) (상반기) SPC 설립 → (하반기) 건설 및 태양광발전 가동
* (ESCO) (3월) SPC 운영계획 마련 → (3분기) 「KEPCO 에너지솔루션」 설립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참고 '16년 전력공기업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계획



1. 전력신산업 펀드, 올해 1조원, 내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조성

□ **(배경)** 에너지 산업은 ICT 등 다른 산업에 비해 **투자 회임기간이 길고, 공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**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

○ 에너지신기술과 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,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**전력산업과 전력망에 수용**할 필요

○ 사모펀드(PEF) 등 시장의 막대한 **민간자금을 에너지新산업으로 유치**하기 위해서도 **한전의 선도적 투자**가 중요

○ **민간과 한전의 공동투자**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도 펀드가 필요

○ 최근 에너지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재생, 에너지효율, 스마트그리드, 에너지저장 등 **에너지신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**하는 다양한 펀드 운영 중

< 해외의 주요 에너지신산업 전문 투자 펀드 사례 >

펀드	출자	투자내용
The Energy Entrepreneurs Fund	英 에너지·기후변화부	에너지분야 기술혁신, 에너지효율, 발전, 에너지저장 분야 자금을 보증 형식으로 지원
Electranova (벤처캐피털 위탁)	佛 EDF (전력공기업)	에너지분석SW, 연료전지, 에너지저장,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기업에 투자
Global EE and RE Fund	European Commission	개도국 신재생, 효율, 에너지저장, 스마트그리드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

□ **(주요 투자분야)** 에너지산업에 **새롭게 등장하는 신생기업 창업·육성, 기술개발, 사업화·해외진출** 등 기능별 **다양한 유형의 자금수요**를 충족

< 전력신산업 중소·벤처기업 육성펀드 투자분야 >

- 전력 분야 **중소·벤처기업의 육성** 및 **전력시장 포용 지원**
- IT, SW, 로봇, 드론 등 **신산업과 에너지의 융합**
- 한전과 중소·벤처기업의 **동반 해외진출** 지원
- **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** 개발 등

□ **(조성목표)** 1차년도인 금년에는 **1조원**을 조성하고, 내년에 1조원을 추가 출자하여 **총 2조원 규모 조성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□ **(구성방안)**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펀드는 **母子형 펀드** 형태로 운영하고, 우선 한전이 출자하는 **최상위 母펀드를 구성**

○ 母펀드 하부에 기업의 성장단계, 투자대상, 기능별로 **다양한 子펀드를 결성**, 시장수요에 맞는 자금을 지원

< 육성 지원펀드 구성안 >



□ **(펀드 형태)** 母펀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**다양한 형태의 출자와 투자**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법적 형태를 결정할 예정

* 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「민법」상 조합 등

○ 子펀드는 엔젤투자·창업·M&A·해외진출 등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VC(벤처캐피탈), PEF(사모펀드), 신기술조합 등 **다양한 형태로 설립**

□ **(후속조치) 한전 및 민간수요**를 바탕으로 **운영기본계획을** 마련(3월)하고, **자금출자, 관리기관 선정 등** 실무작업*를 거쳐 **4분기부터 본격 운영**

* 관련기관 협의, 투자관리 전문기관 선정, 자펀드 세부구성, 투자규약 체결, 민간 동반투자 유치, 투자대상 발굴 로드쇼 개최, 운용사 평가기준, 투자심의기구 구성 등

○ (투자대상 발굴) 에너지산업 분야 **유망 중소·벤처기업 발굴 로드쇼**, 대학·연구소 등 대상 **신기술 과제 조사 및 설명회** 개최 (4월~)

○ (투자전략) 정부의 **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*과 펀드 운영방향이 조화**를 이룰 수 있도록 **투자심의기구 등 운영구조 설계**

*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중점분야, ODA·MDB 활용 해외진출 전략 등

참고 **해외 전력기업의 新산업 투자 펀드 사례**

◈ 서구의 주요 전력기업들은 **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전력 분야 혁신기업과 신기술에 대해 다양한 투자를** 진행 중

전력기업		투자 형태	투자 내용
국가	기업명		
프랑스	ENGIE New Ventures	펀드 GDF Suez New Ventures	에너지 컨트롤, 부하관리, 분산전원 등 분야의 신기술 창업기업
프랑스	El F	펀드 ELECTRANOVA	에너지 분석 SW, 연료전지, 스마트그리드, 에너지저장 등 분야 신기술 기업에 투자
독일	E·on	직접투자 Strategic Co-Investment	분산자원, 신재생, 전력신기술 등 분야 벤처기업의 상업화 지원
독일	RWE	펀드 Innogy Venture Capital	바이오매스, 수력, 태양광, 에너지 저장, 풍력 등 분야의 신기술 투자
스페인	IBERDROLA	펀드 Iberdrola Ventures Program	수요반응, 분산자원, 신재생, 로봇·SW 등을 이용한 인프라·운영 등 분야의 신생기업 투자
이탈리아	Enel	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nel Lab Program	에너지효율, 전기차 충전, 배터리관리, 분산 전원관리 등 전력 벤처기업 투자 (기술, 경영, 법률 컨설팅 포함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2. 학교 태양광 설치 등 전력공기업의 신재생 투자 대폭 확대

□ (**주요내용**)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**학교 옥상 부지** 등 공공기관에 **태양광 설비를 설치***하고,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** 일부를 학교와 공유하여 **학교의 전기요금 감면효과**를 실현

* 그간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학교 옥상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설치비용 부담(50kW 설치시 약 1억원) 등으로 시장창출에 애로

** 현재 기준으로 50kW 1년 가동시 약 1,4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**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**

○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법인(SPC)를 설립하고, 학교 옥상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되 태양광 설치 효과가 높은 학교(300인 이상) 중심으로 시·도별 안배('16~'17년 4,000억원 투자, 2,000개 이상 학교, 200MW 규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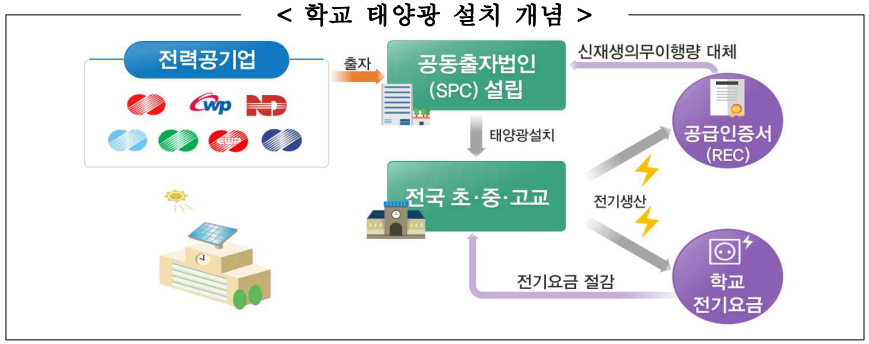
* 초·중·고교 현황('14년) : (300人이상) 7,404, (100~300人) 1,470, (100人이하) 2,572

□ (**기대효과**) 학교는 전기료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활용효과, 전력공기업은 신재생 확산과 공급인증서(REC) 확보

☞ **例**.300만원 지원 가정시 **연간 전기요금**(초등 2,700만원)**의 11% 수준 절감 효과**

○ 연간 온실가스 12만톤 감축 효과와 함께, 태양광 업계에도 7,000여명의 일자리와 3,500억원의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

< 학교 태양광 설치 개념 >



□ (**후속조치**) 상반기중 SPC 설립, 설치 대상학교 선정(교육부, 시·도 교육청 협조), 이익분배 모델 수립 등

○ 하반기중 자재발주,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빠르면 **금년말부터 학교 태양광 발전기 가동 (연내 최소 1,000개 학교 이상)**

3. ①스마트미터(AMI): 올해 총 2,500억원 투자, 200만대 보급

□ (**주요내용**) 對전기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미터를 올해 2,500억원의 투자(200만호)를 실시하고, 내년까지 누계로 총 5,500억원 투자 (누계 450만호)

○ (**보급계획**)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필요한 **중소기업, 일반 상가**와 요금제·국민 수요반응(DR) 실증이 가능한 **저압주택(아파트 포함)**을 대상으로 보급

* 좌초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계량기부터 우선 교체

* 보급지역 선정(2월), 계량기·통신 업체 선정(4월), 구축 완료(12월)

○ (**소비자를 위한 실증사업**) AMI 보급 지역에서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**요금제 실증, 누진제구간 정보 제공** 및 **국민DR** 실증 추진

- (**요금제 실증**)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시별·피크 요금제 등을 설계하고 보급 지역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요금제 실증

* 요금제 설계(2월), 주거환경(아파트, 연립주택, 개별세대 등)과 전력사용량(누진제 구간)을 기준으로한 대상 소비자 지정(4월), 비교 알림 서비스(7월), 요금제 실증(~12월)

- (**국민 DR 실증**) 가정·아파트·상가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아낀 전기를 팔수 있도록 스마트미터가 보급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

* 국민DR 추진방안 수립(2월), 시장참여조건·감축량 산정·인센티브 등 세부사항 검토(6월), 시범단지 선정(8월) 국민DR 관련 표준화 개발(8월), 국민DR 1단계 시범사업(11월~)

○ (**해외진출**)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*를 바탕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국가,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해외 진출 추진

* N텔레콤 사례 : 스웨덴, 이라크, 인도 등 17개국 109만호 AMI 수출

*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시 AMI 기업 참여

□ (**기대효과**)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실시간 전력 사용량 정보 제공으로 **소비자 서비스를 향상**하고 전국 각 지역에 **스마트그리드 기반 조성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3. ②주파수조정용(FR) ESS: 올해 1,800억원 투자 내년까지 총 6,250억원 투자 완료

* 주파수조정: 전력계통에서 정격주파수(60Hz)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

□ **(주요내용) 올해 총 1,800억원 규모의 FR용 ESS 사업을 지속 추진**하고, 시스템 운영·PCS·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**해외진출 지원**

○ **('16 FR용 ESS사업)** 2월까지 **ESS 사업형태**(옥외형, 옥내형), **지역별 용량 등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**를 마치고, 4월까지 **지역별 사업자 선정**

*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(2월), 사업발주·사업자 선정(4월), 사업 착수(6월), 시운전('17.1~)

○ **(해외진출)** 상업운전 설치·경험을 바탕으로 **금융·정보·전략 등 종합지원***

* **(금융)** 프로젝트 파이낸싱(MDB, AIIB, GCF, EDCF) + 무보 + 輸銀 연계
(정보) KOTRA(지역별 투자동향), 현지지역 컨설팅,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지원

① 국가별 특성과 우리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**단계별 프로젝트** 추진 (중소·중견기업 동반진출 연계)

< ESS(FR) 해외진출 추진전략 >

(i) **(단계별 전략)** (1단계) 인도, 괌 등 現 추진중 사업 수주지원 가시화 ⇨ (2단계) 중동, 아프리카 등 미진출 유망지 개척 ⇨ (3단계) 중국 등 거대시장 진입 ⇨ (4단계) 미국,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

* ESS 해외수주 현황 ① 괌 전력청 ESS 1단계 구축사업(한전-민간 컨소시엄 입찰 중) ② 인도 국영 송전회사-한전 ESS 등 SG사업 협약('16.1월)

(ii) **(프로젝트 유형)** ① 변전소+ESS+기타(EMS 등 운영시스템), ② 전체 전력망(송·배전망) 연계형, ③ 기타 스마트그리드(MG, 도서지역) 연계형, ④ 대규모 패키지딜 연계 사업형(정상외교 활용)

② **'현지 프로젝트 개척단 파견 및 전문 로드쇼***(주요 바이어 상담회 연계) 연내 추진

* 민관합동 조사단 결성[정부(산업부), 공기업(한전,KOTRA,무보 등), 법률·컨설팅社, 전력 중소·중견기업 등], IR·현지 정부관계자 면담 및 주요바이어 상담 추진

□ **(기대효과)** 주파수 조정 ESS 실증을 통한 **국내 수요창출과 실증 경험 확보**, 국내실증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 **해외진출 추진**, **ESS 밸류체인 기업 경쟁력 향상**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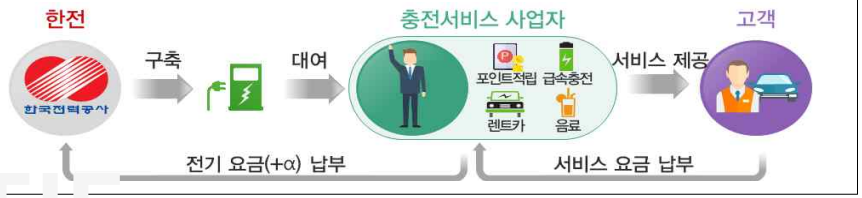
4. 제주·서울 도심지역에 20개의 대규모 충전소(충전기 500기) 설치 올해말까지 250개소·1,500기의 충전기를 설치, 민간사업자에게 개방

□ **(주요내용)**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**제주·서울의 도심지역**에 중대형 규모의 **신규 충전소 20개를 설치(충전기 500대)**하고, 민간에 개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요금제도 등을 실증('**16년 한전 2,000억원** 투자)

< 개방형 플래그쉽 충전소란? >

◈ **(한전)** 충전인프라 구축, **(충전사업자)**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적용, 서비스 제공

☞ 충전요금, 사용자인식 과금 시스템, 충전정보 교환, 고객 서비스 모델 등 다양한 실증 수행



○ 이를 위해 **전국의 한전 지사**를 **공용 충전소로 개방**하고 충전소를 추가 설치(현재 120개소 340기 → 상반기내 **추가 110개소 660기**)

< 전기차 충전소·충전기 현황 및 계획 >

구 분	제주도		서울시		전국 한전지사		누계	
	충전소	충전기	충전소	충전기	충전소	충전기	충전소	충전기
~'15년	-	-	-	-	120개소	340기	120개소	340기
'16년	**14개소**	**350기**	**6개소**	**150기**	110개소	660기	**250개소**	**1,500기**

□ **(기대효과)** 충전사업자의 초기 설비투자비용 절감*을 통해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**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**

* 그간, 전기차 충전기의 **높은 가격**(급속 5~6천만원 등)으로 민간이 충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**부담으로 작용**하여 결과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장애

□ **(후속조치) 도심지역 신규 충전소**는 상반기중 부지선정, 건물리모델링, 충전기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**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**

○ **한전지사를 활용**하는 공용충전소는 **상반기까지** 110개 개설을 **마무리**

○ 금년내에 **전국 충전소간 통합 운영시스템**(한전)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충전소 통합 위치 조회, 요금정보 등을 제공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5. 電力빅데이터: 올해 500억 투자, 상반기中 공공 활용 정보 공개, 하반기 「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」 개설

□ **(주요내용)**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**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공개**하고 **개방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「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」 구축**

○ **(공공정보 공개, 6월)** 한전, 거래소, 민간연구소 등이 함께 전력 사용량 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공공재 정보*를 공개

* 경제·산업 동향, 휴일·여가시간 활용 패턴, 전국 누진제 요금 부담 분포 등

○ **(소비자 보호 및 정보 이용 기준, 8월)** 전기 소비자가 전력량 정보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마련

* 데이터 익명化 및 개방데이터 표준개발,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이용절차 규정

○ **(「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」 구축, 9월)** 공익 목적의 공공재 정보, 소비자 요청 정보,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민간 수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

* (설립) 한전을 포함한 관련 기관, (운영) 정보 공개 및 가공 절차 등 기준 마련

* (공공재 정보) 한전과 민간영역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정보 중 경제·사회·문화 등 공공적 연구에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가공·공개

* (비스니스개발 정보) 에너지 컨설팅, 수요 반응, 에너지 효율 관리 등 다양한 新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제공

□ **(기대효과)** 비즈니스 컨설팅, 에너지 효율 관리, 수요반등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

< 전력 빅데이터 활용센터 구성 >



6. 별도법인을 설립, ESCO 등 에너지효율 사업에 3천억원 투자

□ **(주요내용)** 아파트, 상가, 산단, 공공부문 등의 **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**까지 **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**를 제공하는 「**KEPCO 에너지 솔루션**」 설립 (3분기)

○ LED, 스마트미터, 태양광, 컨설팅 등 **중소기업을 모아, 에너지설비 진단·개체와 서비스를 묶어 제공**하는 사업모델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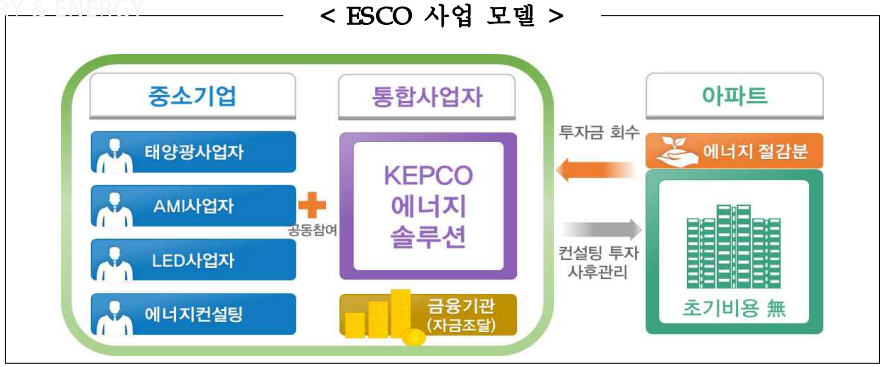
*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, 개별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**중소기업, 주택·아파트, 중·소형 상가, 학교 등 공공부문**은 **효율관리 사각지대**에 위치

○ **민간 ESCO사업자과 공동**으로 효율관리가 취약한 **아파트·중소기업의 고효율** 설비 개체, **가로등·터널** 등의 **LED교체** 등에 **ESCO 투자 실시** (3천억원)

* 고효율설비 개체, 가로등·터널 등의 LED교체, 가정 내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서비스, 노후조명·변압기 교체 등 ESCO 투자사업

□ **기대효과)** 중소기업의 에너지솔루션 공급사슬을 관리하면서 그간 소외되어 있던 부문에서 **ESCO 신시장 창출**

< ESCO 사업 모델 >



□ **(후속조치)** 상반기 중 아파트, 상가, 산단, 공공부문 등 국내 취약지역 **효율관리 실태조사, 사업성 분석** 등을 통해 **에너지효율 사업 대상 발굴**

○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「**KEPCO 에너지솔루션**」을 설립하고, **협업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·아파트 등과 사업추진 MOU 체결, ESCO 기자재 수급계약** 등을 거쳐 **본격사업 착수** (3분기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Ⅱ.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

7. ①旣 발굴된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

□ **(주요내용)** 연두 업무계획(1.18)에 보고된 판매시장 및 전력시장 진입 규제는 **상반기 중 모두 정비**하고, **시범사업 실시**

< 연두 업무계획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 >

▪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에 대한 규제완화

- 개인(프로슈머) 생산 전기 직접 판매 허용 ☞ 전기사업법 개정
-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 허용 ☞ 전기사업법 개정

▪ 신기술,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완화

- 대용량(1MW 이상) ESS 전력거래소 판매 허용 ☞ 시장운영규칙 개정
- 전력중개사업 허용(소규모 전기를 모아 거래소 판매) ☞ 전기사업법 개정

○ **(하위규정, 3월까지 개정)** 고시, 시장운영규칙 등 하위규정은 **3월까지 개정 완료**

○ **(법률 국회제출, 6월)** 전기사업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**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**해서 **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제출**

○ **(프로슈머 시범사업, 상반기)**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전, 고시 개정을 통해 **요금정산 방식으로** 거래가격 실증 등을 포함하는 **프로슈머 시범사업 실시** (2~3개 지역)

- 실증대상 지역 중 1개소는 **공모를 통해 선정**

* (공모조건) 태양광 등 분산자원 소재, 프로슈머 잉여전력, 누진제 부담 등

□ **(기대효과) 에너지 산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**

○ **하위규정 개정 방식의 시범사업**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, 공모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**규제완화의 성과를 사전에 직접 체험**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7. ②프로슈머: 실증사업 3월中 실시, 상반기中 추가지역 공모

□ **(주요내용)**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의 실증사업을 실시하고,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 프로슈머 거래의 근거 마련

○ **(실증사업, 3월) 실증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(2월, 2개)**하고 한전이 전기요금 정산을 매개로 중개 **실증사업(3월)** 추진, 상반기 중 **추가 지역을 공모**(1개)

* 대상지역 : 태양광 등 분산자원을 소유하며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프로슈머가 있는 지역, 프로슈머와 이웃이 동일 배전망(배전변압기 하단)을 사용하는 지역

* 거래방식 :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각각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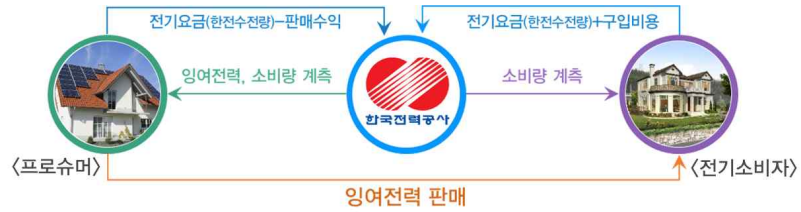
○ **(전기사업법 제출, 6월)** 일정 구역의 프로슈머(분산자원 보유, 발·판 겸업자)가 같은 **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**할 수 있도록 **전기사업법 개정 추진**(개정안 6월 국회 제출)

* ①일정규모(예시: 20MW이하)의 발전원(태양광 등)에 대해 발·판 겸업 허용, ② 별도 판매사업 허가의제, 사업자 등록제, ③약관(거래가격) 신고 등

□ **(기대효과)** 프로슈머의 **전기판매 수익 발생,** 전기소비자의 **누진제 부담 경감**,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

□ **(일정)** 실증사업 지역 선정 및 정산시스템 개발(2월), 실증사업 착수(3월), 하반기 실증지역 공모(5월),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(6월)

< 실증사업 개요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>



* **(프로슈머)** ①잉여전력 판매, ②판매수익은 **전기요금 절감**으로 보상

* **(전기소비자)** ①잉여전력 구입, ②구입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지급, ③사용전력 중 일부를 프로슈머로부터 구입함으로써 **누진제 부담 완화**

* **(한전)** ①스마트미터를 통해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**전력소비량 및 거래량 계측**, ②거래비용을 **전기요금에 반영**하여 정산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7. ③ESS: 전력거래 허용으로 시장 확대, 중장기 피크 발전소로 활용

□ **(주요내용)** 대형 ESS 보급 활성화와 ESS를 피크 발전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**대용량 ESS의 전력시장 참여 허용**

* 캘리포니아에서는 100MW의 ESS를 피크발전소로 사용(The Economist '16.1.16)

○ **(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, 3월)** 전력시장 등록 유형(중앙, 비중앙)에 따라 세부적인 시장참여 요건, 시장 거래 절차 마련

* 중앙 등록 기준 : (현행) 20MW 초과 → (개선) ESS에 한해 용량 완화(기준 검토 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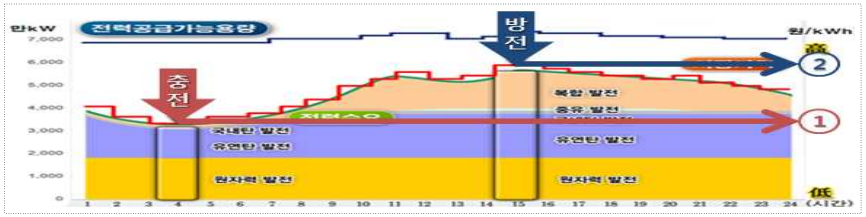
- **(중앙급전 ESS 발전기)** ESS를 전력시장 중앙 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 부여

- **(비중앙급전 ESS 발전기)** 신재생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거래소에 판매

□ **(기대효과)** 공장, 빌딩, 상가 등에 대한 **ESS 보급 확대**,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**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**

□ **(일정)** 규칙 개정안 작성(1월),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(2월),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(3월, 규칙개정위원회 · 전기위원회 등)

< ESS 발전소 비즈니스 모델 (예) >



- 입찰 : 최대 충·방전용량 및 해당 거래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작성
- 정산 : (충전전력량정산) 충전량 × 시장가격(①), (방전전력량정산) 방전량 × 시장가격(②)
  * 경부하/피크부하 시간대의 시장가격 차이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
- 용량요금(중앙급전 경우) : 급전 지시 및 방전 가능한 용량에 대해서만 지급

7. ④전력 중개사업: 6月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,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

□ **(주요내용)**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신재생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도입

○ **(전기사업법 제출, 6월)**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정의, 중개시장 운영, 중개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근거 등 **법적근거를 마련, 국회 제출**

* **「중개시장 운영고시」 별도 제정(5월)** : 모집 가능한 분산자원 정의, 중개사업자의 역할(자원모집 및 등록, 출력 예측, 전력거래 대행, 시설물 관리 등), 전기소비자 역할 등

○ **(시범사업, 11월)** 중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로 선정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**중개시장 운영 실증**

* (참여) 전력거래소, 중개사업자 희망 기업(태양광 설치 업체 등 공모, 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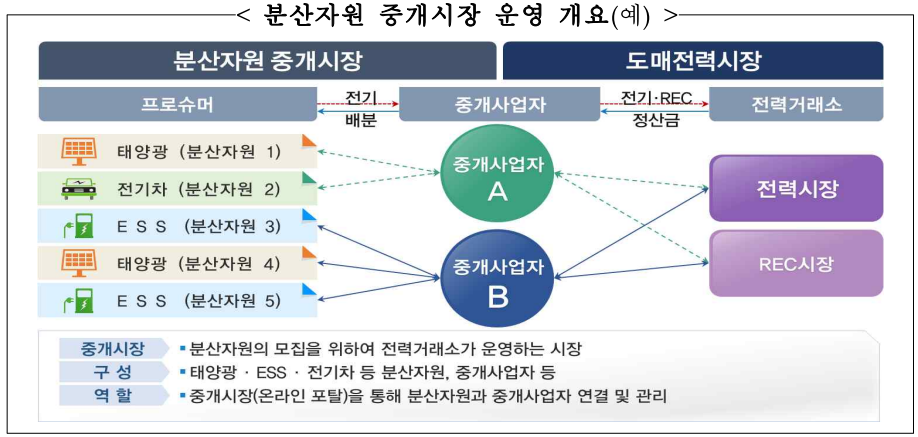
* (지역) 소규모 분산자원이 집중 분포된 지역(전북, 전남 등)

* (주요내용) 분산자원 모집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, 수익구조 분석, 旣개발 (~ 0[illegible]한 중개시장 포탈, 사용자 운영 시스템 활용 등

□ **(기대효과)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 비즈니스를 창출,** 소규모 신재생 판로 확대, **REC 교섭력 증대 및 수익 향상**, 신재생 자원의 통합 관리 등

□ **(일정)** 중개시장 및 수익모델 분석(2월), 중개시장 포탈 등 시스템 설계(4월), 전기사업법 개정안(6월), 중개시장 운영고시 제정(10월), 시범사업(11월)

< 분산자원 중개시장 운영 개요(예) >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8. 「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」를 통해 규제 전수조사

□ **(주요내용)** 연두 업무계획에 旣 반영된 과제뿐만 아니라, 석유·가스·전기·열 등 **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**

○ **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,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,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** 등을 발굴

□ **(추진체계) 민간 전문가**와 **산업부 제2차관**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**「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」**를 신설, **규제개선 과제 발굴**

○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**전수조사, 정책과제 공론화, 개선방안 종합검토, 이행실점 점검·보완** 등을 추진

○ 협의체에 **에너지원별 분과위원회***를 두고, **시장의견 수렴, 산업별 애로요인 분석, 협의체 상정 과제 검토** 등 실무 검토 작업을 담당

* 석유, 가스, 전기, 집단에너지 등 4개 분과로 구성

*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, 법률·규제개선·회계·컨설팅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(간사: 산업별 담당과장)

<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체계 >



□ **(운영)** 「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」는 **원칙적으로 매월 1회씩 정례 개최**하고 **분과별 규제개선 실적 점검 및 피드백**

○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**시장과 기업,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**하고 **검토 결과를 매월 협의체에 보고**

□ **(향후일정) 1월 중 협의체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**하고,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착수

○ 분과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**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6월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 발표**

9. ①3월부터 충전사업자 전기요금 원가부담 최대 23% 경감

□ **(배경)** 충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, '11.8월부터 운영중인 **전기차 충전용 계절별·시간대별 차등요금제** 적용

○ 그러나, 現 요금표는 **낮 시간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**, 향후 본격 영업 시 충전사업자의 원가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

* 시간대별 전기차 충전량 비중('15, %, 한전): (경) 37, (중간) 40, (최대) 23

<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표 >

구 분	기본요금 (원/kW)	전 력 량 요 금 (원/kWh) 시 간 대	여름	봄·가을	겨울	구 분	기본요금 (원/kW)	전 력 량 요 금 (원/kWh) 시 간 대	여름	봄·가을	겨울
저 압	2,390	경 부 하	**57.6**	58.7	**80.7**	고 압	2,580	경 부 하	**52.5**	53.5	**69.9**
		중간부하	145.3	70.5	128.2			중간부하	110.7	64.3	101.0
		최대부하	**232.5**	75.4	**190.8**			최대부하	**163.7**	68.2	**138.8**

* 시간대 구분(여름): (경부하) 23~9시, (중간부하) 9~10, 12~13, 17~23, (최대부하) 10~12, 13~17

□ **(운영) 충전사업자**의 **영업행태**에 따라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**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다양**하게 설계

< 사업자용 요금제 설계안 >



○ 이와 함께, 규제프리존인 **제주도**에 대해서는 **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** (특례안: 2년간 기본요금 50% 할인)

□ **(기대효과)** 충전사업자의 **원가부담을 절감**, 시장 진입을 촉진

○ '주유소형' 사업자*에 신설 요금표 적용 시, 연간 전기요금은 2,620만원으로 **현재 요금(3,200만원) 대비 580만원 경감(18%↓)**

(제주 소재 사업자는 기본요금 할인으로 150만원 추가 경감(23%↓))

□ **(후속조치)** 충전사업자 의견 추가 수렴, 요금제 세부 설계방안 확정(2월) →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인가(3월말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9. ②전기차 충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구매 허용

□ (**배경**) 전력거래소(전력시장)로부터의 직접전력 구매는 전기사업법 상 **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**(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)**만 가능**

○ 현재 모든 충전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단일한 가격(충전요금제)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

□ (**주요내용**)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**유료 충전사업자**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, **전력거래소**(전력시장)**로부터도 소비자 충전판매용 전력을 구매**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(**기대효과**) 한전의 충전용 전기요금제 또는 전력시장 직접구매 중 **충전사업자가 처한 상황**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**다양한 수단 선택** 가능

○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소비자(전기차 운전자)에게 보다 **저렴한 충전 이용요금 제공**이 가능하여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

< **전기차 충전사업자 적용** (예) >

설비규모	▪100kW 규모(50kW 급속충전기 2대)
직접구매효과	▪약 370만원 절감(당초 전기요금 3,200만원 대비 12% 절감)



□ (**후속조치**) 전력시장에서 충전사업자 직접구매 시뮬레이션 및 전력거래시스템(계량·정산·결제 등) 보완 이후 금년 하반기중 시행 목표

○ 전기사업법('16. 6월 국회 제출), 전력시장운영규칙('16. 하반기) 등 관련 법령 개정

9. ③전기차, 충전 소매요금 기준 마련, 부하 관리도 실시

○ (**취지**) 전력산업에 있어 전기차 충전기는 **새로운 전력수요이자 부하**로, 그리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**전력공급설비**로 다양한 의미 보유

○ (**내용**) **전기소비자**(전기차 운전자) **이익 보호**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전기차 **충전부하** 증가에 **선제적으로 대비**하고 효과적으로 **관리**

-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충전요금과 관련, **「전기차 충전 소매요금제 가이드라인」**을 마련

  * 구성내용(안) : 전기요금/서비스요금 구분, 서비스요금 구성요소, 총괄원가 회수기준 등

- 전기차가 집중 보급되고 있는 **제주**에서, 전기차 확대가 가져오는 **송·배전 계통**에 대한 영향을 **실증 분석**(2~8월, 전력거래소·한전)

  * (실증내용) 전기차 부하 특성 및 송·배전망 부하증가 분석, 충전시간 조절 등

- 충전기 설치 후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시, 주택 등 他 전기사용 계약과 달리 한전에서 **별도 시스템으로 관리**, 부하 조절에 활용

< **전기차 부하 관리 계획** >

(1단계) 충전기 정보를 「**한전 영업정보시스템**」에 별개 DB로 구축(8월)

* (대상) 개인용 홈 충전기 제외(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우려), (방식) 신청자는 별도의 전기사용신청서 작성, (작성내용) 충전기 종류·용량, 커넥터 종류, 충전요금 등

(2단계) DB와「**한전 배전선로시스템**」을 연계, 전국 계통·충전기 정보 연동(8월)

(3단계) 위 정보를 旣 개발('15.12월)된「**충전 부하관리 시스템**」과 연동·활용

* (활용) 배전선로·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, 충전 전압 조절(피크 시 충전 보류) 등

○ (**기대효과**) 전기차 보급 확산을 지원하면서도, 송·변전 및 배전 계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,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

○ (**후속조치**) 전문가 등 의견 추가수렴 및 심층 검토(~2월) → 소매요금제 가이드라인 제정(3월)

- 계통영향 분석·실증 완료(~8월) → 충전기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(8월~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

Ⅲ.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 실시

10. 한전의 브랜드를 활용한 SG/MG* 해외시장 공동 진출

* 스마트그리드(SG), 마이크로그리드(MG)

: 현지 로드쇼 및 「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(KSVP)」 실시

□ **(타켓팅 시장분석)** 국가별 여건, 사업의 경제성, 진출 가능성, 파이낸싱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**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**

< 진출조건과 예상국가>

구분	진 출 조 건	예 상 국 가
1	전기요금이 비싼 국가	필리핀, 호주, EU, 일본 등
2	국토 대부분이 섬으로 구성되어 MG 구성이 필요한 지역	필리핀, 인도네시아 등
3	신재생에너지에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	인도, 말레이시아, 쿠웨이트 등
4	전력 미공급 지역이 많은 국가	남아공, 탄자니아, 모잠비크 등
5	EDCF, ODA 등 국제원조자금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	미얀마, 캄보디아, 이집트, 리비아 등
6	주요 기자재 수출이 가능한 국가	미국, 유럽, 중국 등

□ **(우리의 강점)** 한전의 **송·배전망 운영** 경험, 국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**요소기기**(AMI, 전기차 배터리등) **제조** 능력, 대규모의 제주 실증·주파수 조정용 ESS 실증 등을 통한 **시스템 운영** 능력 등이 탁월

□ **(주요수단)**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을 한전과 연결하는 컨소시엄을 구성, **정상외교·ODA·GCF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**하는 진출전략 전개

① **(유망진출 지역 및 프로젝트 분석)** 현지 정책과 법제, 전력시장 현황, 파이낸싱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**진출 가능 프로젝트* 발굴** (4월)

* 도서지역 MG, 주파수 조정용 ESS, 스마트미터, 신재생 연계 ESS 등

< 대상 지역별 진출전략(안) >



② **(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)** 지역별로 발굴된 유망 프로젝트의 수주에 가장 적합한 **프로젝트별 한국 컨소시엄***을 구성 (연중)

* (구성) 한전, 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 / (운영) 참여기업별로 역할 분담 구체화

③ **(프로젝트별 수주전략 수립)** 컨소시엄 구성 후 입찰참여 전략·금융조달·현지 네트워킹 등을 포함하는 **구체적 수주전략 마련** (연중)

* 「전력 新산업 해외진출 협의체」에 참여하는 KOTRA·輸銀·컨설팅 기관 활용

④ **(수주전략 집행) 정상외교, 시장개척단** 파견, 현지 **로드쇼** 개최, **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**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

☞ 국제기구, 진출 대상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자를 초청하여 국내 실증단지*를 보여주는 **"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**(KSVP)**"** 실시

* (후보 사업) 기업의 데이터센터/클라우드센터, 제주 실증단지, DR사업장, FR용 ESS설치지역, AMI업체 등

□ **(추진일정)** 한국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**협의체 조직, 지역별 맞춤형 수주대책** 마련, **국내 초청 프로그램** 등을 동시에 활용

○ 한전 등 공기업, SG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, 컨설팅 기관 등이 참여하는 **"전력 新산업 해외진출 협의체"** 출범 (2월)

* (구성) 한전, 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 / (컨설팅) KOTRA, 輸銀, 貿保 등

○ 진출 대상국가의 정책과 법제, 전력시장 현황, 국제기구 활용 가능성 등에 기반하는 **"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및 수주 전략"**을 마련 (4월)

○ 인도·동남아 등 대규모 전력 인프라 수요와 진출 가능성이 높은 타겟 시장에는 KOTRA와 연계 **시장개척단을 파견,** 현지 로드쇼 개최(연중)

○ **국제개발은행과 주요 상대국 정책결정자를 초청**하는 KSVP (Korea Smartgrid Visiting Program) 실시(年2회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8 14:33:46